

석유공사-SK, 아프리카 유전도 개발

Perenco 보유 에리트리아 해상광구 탐사 ... 한국이 지분 50% 보유

한국석유공사(대표 이억수)가 2월18일 프랑스 페렌코(Perenco)와 아프리카 에리트리아(Eritrea) 해상 탐사광구 <Defnin Block>에 대한 지분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는 에리트리아 정부의 승인을 거쳐 현재 Perenco가 보유하고 있는 <Defnin Block> 광구의 지분 100% 중 25%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2006년 5월까지 원유 부존 확인을 위해 세부 탐사작업 및 시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SK도 2월19일 공시를 통해 <Defnin Block> 광구의 지분 25%를 취득 및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할 것을 발표했다.

<Defnin Block> 광구는 에리트리아령 홍해(Red Sea) 상에 위치하는 면적 1만평방킬로미터의 대규모 광구로 예상 매장량은 1억2000만배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리트리아 광구 지분 참여로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 사업은 10개국 17개 사업에서 11개국 18개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에리트리아 해상광구 Defnin Block 위치도



<Chemical Journal 2004/02/20>